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현황과 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ivities of Korean Library Staffs Who Worked in Librar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송 승 섭 (Sung-Seob Song)*

목 차

- | | |
|------------------------------|-------------------------------|
| 1. 시작하며 | 4.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현황 및 활동 분석 |
| 2.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 5. 결 론 |
| 3. 일제강점기 도서관 직제와 교육 및 연구회 현황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피지배 계급으로 역사 속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한국인 도서관 직원들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들의 활동을 재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인이 근무했던 도서관과 한국인 직원현황을 조사했다. 둘째, 그들이 도서관에서 종사했던 직책과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셋째, 한국인 도서관 근무자들이 받은 교육에 대한 참석 실태와 도서관 관련 잡지 투고 현황을 조사했다. 현황분석 결과,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도서관 직원은 총 27개 도서관에 241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강습회에 73명,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에 22명이 참석하였고, 주요 도서관 잡지 기고자도 40여 명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들이 해방 후, 우리나라 근대도서관 이식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Korean library staffs and their role who were alienated as a subjugated class in Japanese Colonial Era and re-evaluate their effort. For these, firstly, this study investigated libraries that Korean librarian worked and the status of Korean staffs. Secondly, examined their position and its role in the library. Lastly, investigated the status of Korean librarians' participation for training and submission of magazine related to library. As a result, in Japanese Colonial Era, there were totally 241 Korean library staffs in 27 libraries. 73 and 22 librarians each attended the Library Institute and The 29th National Library Conference. And contributors to major library magazines were reached to 40. With this resul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se library staffs made some parts of efforts making modern libraries in Korea.

키워드: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 조선총독부도서관,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 library Staff, Chosun Government-General's Library,
Korean Library Staff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교육대학원(사서교육) 부교수(libsong@mju.ac.kr / ISNI 0000 0004 6322 6760)
논문접수일자: 2021년 7월 20일 최초심사일자: 2021년 8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8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3): 171-196, 2021. <http://dx.doi.org/10.4275/KSLIS.2021.55.3.171>

※ Copyright © 2021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시작하며

한국의 근대도서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의 문제는 한국의 근대적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의 문제처럼 많은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근대’는 근대로서의 성질이나 특징을 갖는 근대성과 관련이 있고, 이는 사전적 의미로 봉건적이거나 전제적인 면을 벗어난 성질이나 특징을 의미한다. 백린(1969)은 『韓國圖書館史研究』에서 왕권의 교체와 정치의 변동을 중심으로 삼는 일반 사학가의 구분 방법에 따라 도서관의 시대적 구분을 고조선, 삼국, 고려, 이씨조선, 대한제국의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했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나라 도서관에 대한 시대 구분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의 시대를 포괄하지 못했다.

한편 한국 역사학계의 시대 구분은 학문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나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논의된 역사 구분(배항섭, 1991) 중에 하나로 ‘근현대’의 구분을 개항기 이후로 보았다. 세부적으로는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부터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이전까지를 개항기, 1910년부터 1945년 광복 전까지를 일제강점기로 보고, 그 이후를 현대로 보는 관점을 채택했다. 한국 도서관사의 구분도 이 관점을 따르자면, 1876년 이후의 도서관을 근대적 도서관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시대에는 규장각과 같은 왕실도서관, 성균관에 따른 존경각, 그리고 일부 향교와

서원에 부속된 도서관 등이 있었으나, 근대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에서의 근대 공공도서관의 성립은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1901년 부산에 세워진 흥도회 도서실, 1902년 강경, 1909년 경성, 1911년 인천 등지에 세워진 문고와 도서관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은 1906년 평양에 세워진 대동서관이 있었고, 경성에서는 당시 정부 인사를 중심으로 대한도서관 설립 운동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¹⁾ 결국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도서관 설립정책이 한국에서의 근대도서관의 설립과 그 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특정하자면, 바로 일제강점기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도서관 설립과 정책은 해방 후에 그대로 한국의 도서관 설립과 정책에 이식되었고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제강점기 도서관이 해방 이후 우리나라 도서관에 미친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서관 경영의 중심인 도서관 직원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라는 역사 속에서 피지배 계급으로 소외되어버린 한국인 도서관 직원들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렇게 ‘일제강점기’였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잊혀진 한국인 ‘도서관인’의 이름을 다시 소환하는 작업이며, 그들의 활동을 재평가하여 한국의 도서관 역사에

1) 일본의 한국에서의 식민지 도서관 설치와 전개에 관한 주장(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190-192)중, 국내에 최초로 설립된 근대 공공도서관을 ‘부산독서구락부’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김영석, 이용재(2018)의 반론이 있어 향후 보다 진지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서 그들이 활동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인이 근무했던 도서관과 한국인 근무자 현황을 조사하고자 했다. 둘째, 그들이 도서관에서 종사했던 직책과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셋째, 한국인 도서관 근무자들이 받은 교육 현황과 도서관 관련 잡지에 투고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상 조사된 현황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통해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 도서관 근무자들이 근대도서관의 이식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근무했는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2.1 선행연구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활동 현황과 역할을 중심으로 다룬 국내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일제강점기의 사회교육정책과 연관된 공공도서관 정책, 공공도서관 현황과 사회 교화 활동, 도서관의 민족계몽 활동을 전반적으로 다룬 김남석(1990)의 『일제하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은 일제 시기 공공도서관을 이해하는 배경지식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전반적인 활동 현황은 아니지만, 개별 활동을 다룬 연구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당대의 한국인 도서관원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연구는 조선총독부도서관과 국립도서관 부관장을 지낸 박봉석에 관한 연구이다. 박봉석에 대한 연구는 김진수, 남태우, 박기홍, 박희영, 배현숙, 송돈자, 원종린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단행본으로 오동근(2000)에 의해 엮어졌다. 이 책을 통해 일제강점기 분류와 목록, 불전 연구자로서의 박봉석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이용재(2013)는 『도서관인물평전』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그 이전에 활동한 도서관계 인물인 유길준, 윤익선, 이범승, 박봉석, 이봉순을 다루어 한국의 도서관 인물을 조명하여 우리나라 도서관 사상의 궤적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국립도서관 초대 관장을 지냈으나 박봉석에 비해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이재욱에 대해서는 최근 조혜린(2020), 송승섭(2021)에 의해 그의 생애와 사회활동, 활발했던 저작 활동에 관해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일제강점기의 도서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상 소개한 여러 자료에서 한국인 도서관원을 부분적으로 다루긴 했지만, 전체 현황과 활동에 대해서는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없었다. 해외 연구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2017년 오카무라 케이지(岡村敬二)가 『戰前期外地活動図書館職員人名辭書』라는 제목으로 편찬한 인명사전이 있다. 이 책에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만주, 중국, 대만 등에서 활동했던 아시아 여러 나라의 도서관 직원의 인명이 그 약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한반도에서 활동한 일본인과 한국인 720여 명도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한국인 추정 인물을 추려서 조사한 결과, 190여 명으로 추산되었고, 이들 이력 속에 포함된 직장명, 직급, 연구회 활동 및 교육경력 등을 조사하여 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세분하여 활용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일본의 金澤文圖閣 編集部가 2018년 펴낸 『編戰前期「外地」図書館資料集-朝鮮編』 전 9권 중에, 8권과 별권(別卷)에 있었다. 8권에는 일제강점기 평양에서 김인정 여사가 설립한 '인정도서관'에 대한 개요가 있으며, 여기에서 직원 운영현황의 일부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別卷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이었던 박희영(朴熙永)이 펴낸 『朝鮮總督府圖書館員錄』이 있으며, 이에 대해 과거 조선총독부도서관 관원이었고, 도쿄 전기대학 명예도서관장과 교수를 역임한 후지타 유타카(藤田豊)의 『朝鮮總督府圖書館員錄解説』이 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도서관 직원의 전체 현황과 직제와 직급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 일제강점기 도서관 조직과 운영상황을 나타낸 자료로는 1973년 발간된 『國立中央圖書館史』가 있다. 이 책은 제목과 표지에서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인 '국립중앙도서관 50년사'로서 과거 1925년부터 1945년까지의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당시의 도서관 조직과 교육현황 등 운영 실태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 일제강점기의 한반도에서의 도서관 운영상황 전반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외에 2005년 발간된, 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KATO KAZUO, Kawata Iko, Tojo Fuminori) 共著, 『日本の植民地圖書館: アジアにおける日本近代圖書館史』(2009년 번역판, 최석두 옮김, 『일본의 식민지 도서관』, 한울)은 일제강점기 한국에서의 도서관 활동을 시

간과 공간에 따라 종합적이고 통사적으로 정리하여 서술하고 있어 당대 한국의 도서관 직원들의 활동상과 배경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다음, 당시 한국인의 도서관 관련 논문과 각종 에세이 기고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조선도서관연구회의 <朝鮮之圖書館>(통권 30호, 1931.9-1938.7), 조선총독부도서관의 <文獻報國>(통권 102호, 1935.10-1944.12)이 있고, 조선독서연맹의 <讀書>(통권 12호, 1937.1-1938.11)와 조선도서관연맹의 <文化源泉: 良書>(통권 66호, 1939.7-1944.11)가 있어서 오카무라 케이지(岡村敬二)가 인명사전에서 적시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였다. 또한 이들 잡지를 종합하여 목록과 색인으로 구성한 『일제강점기 도서관 간행물 목차집』(한국도서관사연구회, 2020)의 저자 색인을 통해 한국인의 도서관 관련 저작 활동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

2.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일부 설명한 바와 같이 문헌(사료)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일제강점기 도서관의 직제 및 직급, 강습회 등을 통한 직원교육, 도서관연구회와 전국도서관대회와 같은 사서들의 활동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당대의 활동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사진 자료도 확보했다. 다음, 조사된 자료의 내용 분석과 통계작업, 그리고 통계에 대한 분석과 추론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중점 연구 수행을 위해 먼저 『전전기외지활동도서관직원인명사서(戰前期外

地活動圖書館職員人名辭書/岡村敬二, 武久出版, 2017)』 중 한반도에서 활동한 한국인 도서관 직원이나 도서실, 자료실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명을 발췌하여 도서관별로 기록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이어서 단일 도서관으로 가장 많은 도서관 인원이 등재되어 있는 『朝鮮總督府圖書館員錄』과 그 해설서, 그리고 〈文獻報國〉, 〈朝鮮之圖書館〉 등 당대의 도서관 관련 저널 기사와 비교하여 도서관 인사기록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고,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朝鮮總督府職員錄』과 『대한민국인사록』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결과를 평가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각 도서관의 직원록이 제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 자료가 되는 『戰前期外地活動圖書館職員人名辭書』는 각 도서관의 직원록이 아닌 당대의 도서관 관련 저널 〈朝鮮之圖書館〉, 〈文獻報國〉, 〈讀書〉, 〈京城府立圖書館報〉와 『鐵道圖書館案内』, 『朝鮮紳士名鑑』, 『朝鮮紳士寶鑑』, 『朝鮮功勞者名鑑』 등의 인명사전, 그리고 우치고 쓰요시(宇治郷毅) 논문 등에 등장하는 인사 관련 내용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岡村敬二, 292-293). 따라서 전국의 모든 도서관과 모든 도서관의 직원들을 포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자서전이라든가 분명한 사료가 남아 있는 인명은 추가했지만, 소수에 그쳤다. 또한, 일제강점기 도서관 직원들의 연구자로서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한 『일제강점기 도서관 간행물 목차집』 역시 당대의 모든 도서관 저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직원”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법적

으로나 제도적으로 ‘사서’라는 직위를 부여할 만한 직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근무한 모든 직종과 직급의 직원”을 포함해서 ‘도서관 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일제강점기라는 범위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현황 비교가 불가피하지만, 논문의 양적 제한과 한국인 중심의 연구에 맞추기 위해 일본인 인명과 통계는 〈표〉로써 함께 나타내지 못했다. 또한 여기서 사용한 인명은 한자 병기가 원칙이나, 개별 한국인의 역할과 업적보다는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양적 분포와 의미에 치중한 연구여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 우선 원칙을 채택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했다.

3. 일제강점기 도서관 직제와 교육 및 연구회 현황

3.1 일제강점기 도서관 직원 직제와 직급

일제강점기 한국에서의 도서관 직제를 중앙도서관 역할을 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직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23년 11월 29일 공포한 조선총독부도서관 관제는 1945년까지 네 번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립중앙도서관, 161-162).

- ① 1925년 5월 16일 개정, 제2조: 司書 전임 3명을 判任으로 신설하고 書記 1명을 2명으로 하고 사서의 직무를 신설하였다.
- ② 1929년 5월 4일 개정, 제2조: 司書 3명을 4명으로 하였다.

- ③ 1940년 11월 26일 개정 제2조: 司書 4명을 6명으로 하였다.
- ④ 1942년 2월 5일 개정 제2조: 司書 6명을 8명으로 하였다.

이 관제로 보았을 때,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사서는 최소 3명에서 8명까지 유지될 수 있었고, 관장과 사서의 임명은 1933년 7월 1일 공포한 勅令 제176호 「公立圖書館職員令」 제5조 및 6조 3항에 의해 공립도서관장과 사서가 되는 자격을 “司書檢定試驗(사서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 관장으로 처음과 끝을 같이한 오기야마 히데오(荻山秀雄)는 1909년 京都帝國大學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1912년 7월 文部省(문부성) 주최 도서관 강습회를 수료한 이후, 京都帝國大學 부속도서관 촉탁으로 일한 바 있다. 1914년에는 李王職 囑託(촉탁)으로서 한국에 건너와 도서실에 근무한 다음, 1917년 中樞院(중추원) 촉탁으로 전임하고, 1921년 총독부 편집과 촉탁이 되었다가 1923년 11월에 조선총독부 도서관장에 임명되었다.²⁾

문부성 「公立圖書館職員令」에 따라 도서관장 또는 사서 자격 확정을 위한 사서검정시험제도가 정해졌지만, 1936년 10월 30일 文部省令 제18호로 공공도서관 「司書檢定試驗規定」이 공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서검정시험은 먼저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이 합격해야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었다. 필기시험과

목은 國民道德要項, 國語漢文, 國史, 도서관관리법, 도서목록법, 도서분류법, 社會教育概況과 외국어 선택과목(영어, 독어, 불어) 하나 등 총 8과목에 달했다(文獻報國, 2(4):42).³⁾ 따라서 사서검정시험의 합격자는 주로 일본의 「文部省圖書館員養成所」에서 2년여간 교육을 받은 졸업생이었다. 그러나 1937년 2월 22일 실시한 제1회 시험 합격자 중에는 한국인 최장수(崔長秀)가 있었다(文獻報國, 3(4):13). 최장수는 해방 후에 어문각 전무를 지낸 바 있다. 이어서 1939년 3월 실시된 제2회 시험에서는 박봉석(朴奉石)이 합격하여 1940년 5월 10일 사서로 승격하였다(文獻報國, 6(7):17). 이와 같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서검정시험규정」을 통과하여 ‘사서’가 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 수가 대단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사서 밑에 촉탁은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여 전문 분야(전공)를 가진 자를 「촉탁검정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임명했다. 이 밖에 도서관 대부분의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던 직책으로 고원(雇員)이 있다. 고원은 사서나 촉탁의 일을 보조하는 직책이지만 도서관 사정상 단일 업무를 맡기도 했다. 고원은 1936년 4월 7일 직제 변경에 따라 조수(助手)로 바뀌었다. 이때 수위 역할을 하던 순시(巡視)는 취제(取締)로 소사(小使)는 관수(館手)로 바뀌었다(文獻報國, 7(2):16). 고원 외에 가장 낮은 직급을 용원(傭員)이라고 했는데, 이 사이에 사자생(寫字生)이라는 직명을 두었다. 출납수(出納手)는 용원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직급이었지만 시험이 있었고, 그 과목은

2)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근현대인물자료(<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m>)
 3) 文獻報國 등 잡지 기사는 내주 ()속에 인명이나 각주로 표시해야 하나, 대부분 인용 부분에 저자나 제목이 없고 권말에 관보형식으로 그 내용이 섞여 있어서 잡지명을 인명처럼 사용하고 그 출처를 밝혔다(이하 같음).

실무·국어·지리·산술·역사·작문이었고 3일간 실시하였다(文獻報國, 1(1):36).

직제에 따른 도서관 조직(기구)은 당시 총독부뿐만 아니라 대부분 도서관이 서무계, 사서계, 열람계로 시작했다. 총독부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성격이 있어 1934년에는 여기에 보존계와 사회계가 더해졌고, 장서수에 증가에 따라 1942년에 반(班)체제로 바뀌어 열람, 보존, 기획, 사서, 수입, 서무반이 만들어졌고 이후에는 부·반·계 형태로 확대되었다(국립중앙도서관, 168-170).

도서관 직원의 직급은 일본의 문관제에 따라 高等官, 判任官, 雇傭人으로 구분하고, 관등에 준해서 임시직을 두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장은 고등관, 사서 6명 중에 주임이 고등관이고 5명이 판임관이다. 행정 서기 중 서무 담당 주임은 사무관으로서 판임관이다. 사서 업무에 있어 정원 외에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자를 축탁으로 하고, 사서 임관자에 결원이 생기면 사서로 임관시키기도 했다. 업무는 서무, 사서, 열람으로 크게 3개로 분리하여 시행하다가 점차 세분화되었다(金澤文圖閣 編集部-藤田豊, 53-55). 이상 직원록에 정식으로 등재되는 직원 외에 고원에 속하는 임시직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급에 따라 조수, 사자생, 출납수로 구분했다. 기타 시설관리와 기능 요원으로서 공수(제본수, 목수), 취제, 관수(소사)가 있고 별도로 사동(使動)에 해당하는 급사가 있었는데 공식 직명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국립중앙도서관, 171).

3.2 일제강점기 강습회를 통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일제강점기에 오늘날과 같은 사서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단히 적었다. 일본에는 『文部省圖書館司書養成所』와 같은 사서 교육 전문기관이 있었지만, 당시 한국에는 이런 사서 교육 전문기관이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사서 업무를 맡은 인력은 총독부 같은 경우에는 『圖書館事務見習生制度』를 활용하여, 1개월간을 견습 기간으로 하고 도서관 직원과 다름없이 일하도록 하였는데,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임이 후임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이마저도 조선총독부도서관 수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태평양 전쟁 등 사정이 나빠지면서 지속되지는 못했다. 이 외의 대안은 총독부도서관 주관으로 강습회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주최기관은 조선교육회, 조선총독부사업회, 조선도서관연맹 등 여러 기관이었지만 실제적인 예산이나 강사지원은 조선총독부도서관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이 강습회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자리를 잡아가는 1931년부터 해방 전까지 총 9회에 걸쳐 연인원 750여 명에게 실시되었다(<그림 1> ①, ④ 참조). 그 현황을 보면 <표 2>와 같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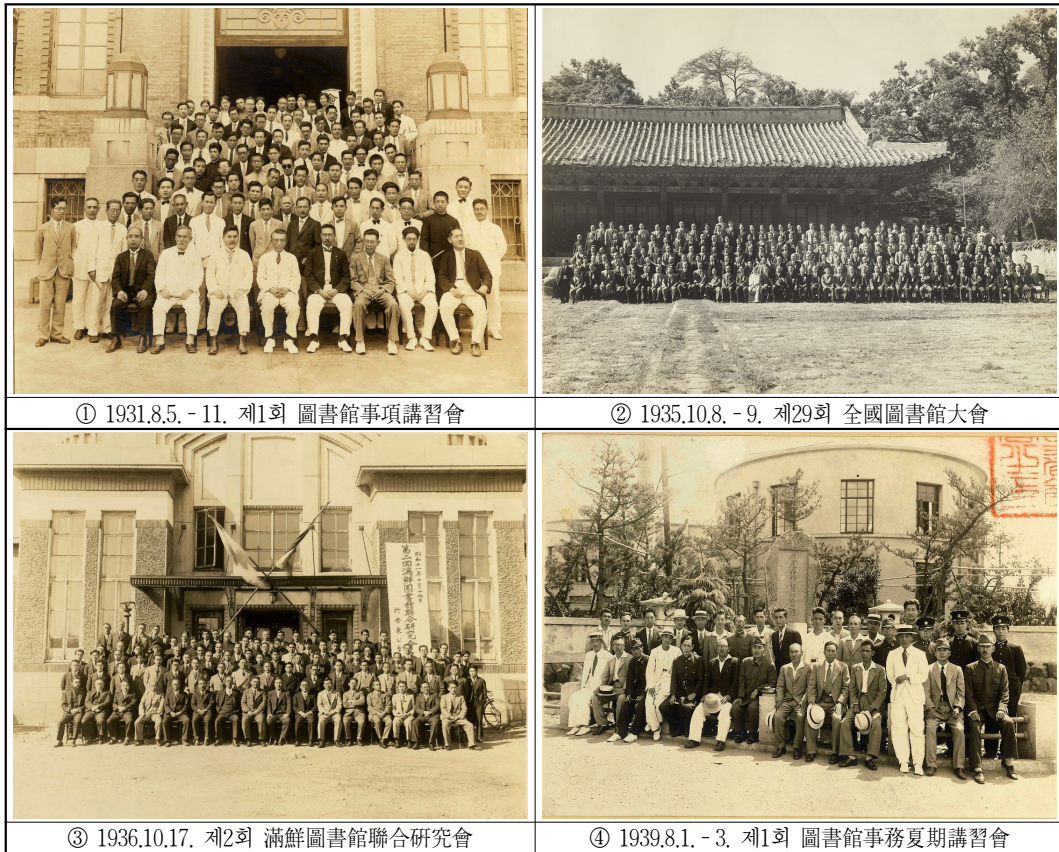
<표 1> 조선총독부도서관 직명

| | | | | |
|--------|--------|----------|--------|----------|
| 관장 | 사서 | 서기(書記) | 축탁(囑託) | 조수(助手) |
| 공수(工手) | 취제(取籙) | 사자생(寫字生) | 관수(館手) | 출납수(出納手) |

4) 일제강점기 도서관 직원 강습회 실시현황은 국립중앙도서관사(1973)의 225-231쪽 내용을 종합하여 다른 참고문헌과 비교, 분석하여 수정한 것이다.

〈표 2〉 일제강점기 도서관 직원 강습회 실시 현황

| 기간 | 강습회 명칭 | 주최기관 | 수료인원(명) |
|-------------------|----------------|-------------|----------|
| 1931. 8. 5. - 11. | 제1회 圖書館事項講習會 | 조선교육회 | 98 |
| 1935.10. 6. - 7. | 제2회 圖書館講習會 | 도서관대회준비위원회 | 126 |
| 1936. 8. 1. - 7. | 제3회 圖書館講習會 | 조선총독부도서관사업회 | 70 |
| 1938. 8. 5. - 11. | 제4회 夏期圖書館講習會 | 조선총독부도서관사업회 | 91 |
| 1939. 8. 1. - 3. | 제1회 圖書館事務夏期講習會 | 조선도서관연맹 | 100 |
| 1940. 8. 1. - 6. | 제2회 圖書館事務夏期講習會 | 조선도서관연맹 | 97 |
| 1942. 3.23. - 27. | 제3회 圖書館事項講習會 | 조선도서관연맹 | 100여명 추산 |
| 1942. 8. 1. - 6. | 제4회 圖書館事項講習會 | 조선도서관연맹 | 78 |
| 1943. 8. 1. - 6. | 제5회 圖書館事項講習會 | 조선도서관연맹 | 80 |
| 계 | 총 9회 | | 752(명) |



〈그림 1〉 일제강점기 도서관 강습회 및 전국단위 도서관대회⁵⁾

5) 사진은 『朝鮮總督府圖書館寫真集』(1943)에 게재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였다(이하 같음).

도서관강습회 개최 기간은 가장 짧게는 2일이었고, 6~7일이 가장 많았다. 개최 장소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이 7회, 서울과학관이 1회 있고, 지방에서는 1939년 부산고등소학교에서 유일하게 개최되었다. 강사는 오기야마 히데오 총독부도서관 관장을 비롯하여 경성제국대학과 경성부립도서관, 철도도서관에 근무하는 일본인 관장과 사서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재욱(李在郁)이 1943년 제5회 圖書館事項(夏期)講習會에 강사로 참여했다. 강의 구성은 필수과목으로 도서관학개론, 학교도서관을 비롯하여 소도서관, 순회문고, 통속도서관 등에 대한 도서관경영법(도서관관리법), 화한서분류법과 목록법(실습)이 있고 선택과목으로 양서분류법 및 목록법(실습), 도서선택, 도서정리, 독서지도, 도서관 교육 같은 과목들이 있었으며, 시기에 따라 조선고문헌관리, 도서 수리법, 권외 대출과 제본론, 근대도서관의 지표 등이 추가되었다. 강습회 참가 인원은 1935년에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에서 개최한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를 앞두고 사전에 도서관대회준비위원회가 이틀간 실시한 강습회(126명)를 제외하고는 대략 100여 명 이내에서 신청을 받아 실시했고, 신청 인원의 90% 정도는 수료한 것으로 파악된다.⁶⁾

3.3 일제강점기 연구회와 전국도서관대회

1925년 11월 첫 번째 도서관 주간에 일부 도서관 직원들이 「조선도서관협회」를 결성하기

위한 협의 결과로 1926년 3월 「경성도서관연구회」가 만들어졌다. 이 연구회는 당시 일본과 조선의 도서관 유지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대상 회원은 철도국도서관, 경성부립도서관, 조선총독부도서관, 경성제국대학도서관의 직원들이었다. 그러나 발전적 해체를 통해 1928년 3월부터는 「조선도서관연구회」를 새로 조직하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서관 직원이 아닌 일반인도 회원으로 모집했고, 사립도서관 직원도 포함되었다. 1931년부터 1938년까지 회지 〈朝鮮之圖書館〉을 간행하였는데, 창간호 명부에 따르면 회원은 모두 116명이었고, 이 중 한국인은 25명이었다. 1939년 7월에는 완전한 협의체인 「조선도서관연맹」을 발족하여 그 활동을 지속하였고, 동년 7월 7일에는 〈文化源泉:良書〉라는 기관지를 창간하여 매월 발행하였다. 이 연맹의 주된 목적은 전시 체제하에 사회교육에 충실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일본의 문화통치 시기에는 한국인도 〈朝鮮之圖書館〉회지 편찬에 참여했지만, 1935년 10월 조선총독부도서관의 〈文獻報國〉 창간 이후에는 일본인 중심의 도서관연구회와 도서관 회지로 경도되었다.⁷⁾

이 밖에 滿洲國과 朝鮮을 뜻하는 명칭을 조합하여 「滿鮮圖書館聯合研究會」가 운영되었는데, 1932년 9월 25일과 1936년 10월 17일 만주 안동 공화당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조선총독부도서관 직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사, 235-236). 또한 “경성부립도서관 유익이 1936년 10월에 개최된 제2회 「滿

6) 국립중앙도서관사(1973) 225-231쪽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7) 국립중앙도서관사(1973) 중, 「조선도서관연구회」 부분과 한국도서관사연구회(2020)의 『일제강점기 도서관 간행물 목차집』 중, 해제(iv-vii) 부분을 참고했다.

鮮圖書館聯合研究會」 참석차 만주국 안동으로 출장갔다”(岡村敬二, 270)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상당수 부립도서관 직원들도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회는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과 만주에 있던 도서관인들이 모여서 식민지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연구와 협의를 하는 연합회 성격이었다(〈그림 1〉-③ 참조).⁸⁾

연구회와는 성격이 다른 전국적인 모임으로 일제강점기 ‘전국도서관대회’가 있다. 이는 일본 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주로 일본에서 열렸지만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는 1935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경성제국대학 강당에서 열렸다(〈그림 1〉-②). 이는 식민지에서의 두 번째 대회로서 1935년 10월 1일은 「朝鮮市政25周年紀念日」이며 「조선 신궁진좌(神宮鎮坐) 10주년」이기도 하여 조선 각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의 하나로 개최된 것이다. 대회 참가자는 모두 186명이었는데, 그중 당시 조선에서는 95명(일본인 73명, 한국인 20명), 만주와 대만에서의 참가자는 21명이었다. 일본 본토의 도서관인으로서 이 대회에 오는 것은 관광, 유람이 반이었다지만 당시 조선의 도서관인으로서 이 대회를 조선 도서관진흥의 일대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것은 이 시기에 조선의 도서관 수가 1932년 52개 관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325). 반면, 조선총독부는 직접 도서관을 사상

의 선도기관, 식민지 이데올로기 주입기관으로서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특히 이 대회에서 “도서관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우가키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은 도서관의 2대 사명을 ‘사상(思想)의 관측소(觀測所)’이자 ‘양서선본(良書善本)의 선택소(選擇所)’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일본도서관협회는 문부성의 보조금을 얻어 양서 보급사업(1931년)을 하고 중앙도서관제도(1933년)로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대회를 통해 조선총독부는 도서관 사업을 자치적으로 실시하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국가의 강제적 개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었다(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215-216, 326).

이 대회에 참석한 한국인 도서관인은 2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면모를 보면, 인정도서관을 설립, 운영한 이인정 여사와 정두현 관장, 장재준 직원을 비롯하여 나중에 국립도서관 부관장이 된 박봉석, 서울대학교도서관 초대 관장이 된 김진섭, 농촌 문고에 대한 많은 글을 발표하고, 해방 후 초대 농림부 국장으로서 토지개혁법 입안에 참여한 강진국, 서울대학교도서관 부관장이 된 김구경(1946년에 서울대학 중국문학과 교수가 됨), 당시로서는 드물게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연희전문학교 도서관장을 지낸 이묘목, 문부성이 발급한 ‘사서 자격증’을 한국인 최초로 보유하고 조선서적회사 지배인과 어문각 전무를 지냈던 최장수, 경성도서관연구회에서 활동하고 경성부립

8) 일본은 당시 南滿洲鐵道株式會社를 통해 식민지 조선, 만주, 중국, 대만 등을 경제적으로 통제하였고, 일본도서관협회는 도서관대회 개최를 통해 도서관을 통한 정보수집과 사상통제에 나섰는데, 조선과 만주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文獻報國〉 등에는 항시 ‘鮮滿關係雜誌重要記事目錄’이 수록되었다. 이는 조선과 만주의 도서관이 일본의 통제하에서 협력관계를 갖고 도서관과 관련 연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서관 종로분관장을 한 성달영이 있었다. 이 밖에도 경성부립도서관 홍종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송여근과 임성빈, 연희전문학교 사서관 유경상, 조선총독부도서관 강문희, 고흥 겸, 하부호 등이 있었다.⁹⁾ 한편,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 촉탁으로 근무했고, 해방 후 초대 국립도서관 관장을 했던 이재욱은 당시 기념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참가자 명부에서 확인되었다(文獻報國, 1(2):60).

한국에서 전국도서관대회가 열린 후 2년 뒤인 1937년 6월 3일에는 만주에서 제31회 『전국도서관대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는 조선총독부도서관 강문희와 김태인, 경성부립도서관 종로 분관장 성달영, 인정도서관 정두현 등이 참석한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 남만주철도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봉천도서관에 소속된 사서 김구경과 하얼빈 철도도서관 사서 김재두도 참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한국인들이 일본 식민지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도서관계 한국인 실력자들로서 사실상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근대 한국 도서관의 발전을 이끈 지도적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도서관계 선구자였던 이들 가운데 많은 인사가 한국전쟁 중에 납북되거나 행방불명 소식을 모르고 있다.¹⁰⁾

4.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현황 및 활동 분석

4.1 조선총독부도서관 한국인 직원현황 및 교육 활동

일제강점기 중 조선총독부도서관은 1923년 11월에 세워졌지만, 개관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일본 천황 제사일을 기념하여 1925년 4월 3일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도서관에 근무한 한국인 직원현황은 1925년부터 4월부터 1945년 8월 해방 시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 한국인 직원에 대해 한국 사데이터베이스의 『朝鮮總督府職員錄』에는 촉탁 이상만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1937년 이후에만 해당된다. 고원 이하까지 기록한 오카무라 케이지의 『戰前期外地活動図書館職員人名辭書』가 가장 포괄적으로 194명의 한국인을 기록하였다. 오카무라의 기록과 박희영이 수기로 작성한 『朝鮮總督府圖書館員錄』은 상호 검증과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 인명과 내용을 담고 있다. 『朝鮮總督府職員錄』을 보면, 1937년에 21명으로 가장 많은 직원(관장, 사서, 서기, 촉탁)이 등재되어 있는데, 오기야마 히데오 관장이 1937년에 언급한 것은 70명이었고, 1942년에는 95명이었다(국립중앙도서관, 173). 반면에 후지타 유타카(藤田風)의 『朝鮮總督府圖書館員錄解説』에 따르면, 1940년대에는 고용직을 포함해서 대략 100여 명 내외의 직원

9) 여기서 소개한 도서관원은 <그림 1>-②에 나타난 인명을 1935년 <文獻報國> 12월호 59-62쪽에서 확인하고 개별 인사에 대한 이력을 조사해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10) 일제강점기 주요 도서관 인물로 평가받는 국립도서관장 이재욱, 부관장 박봉석, 서울대학교 초대관장 김진섭(金晉燮) 등은 모두 납북되거나 행방불명 처리되어 그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다.¹¹⁾ <표 3>과 같이 일제강점기 전 기간을 통해 보면, 조선총독부 도서관에서 근무한 한국인 직원은 총 166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근무했던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로 표기된 도서관강습회 참여수를 보면, 연인원으로 48명이 도서관 실무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도서관 한국인 직원현황

| 직책 | 관원 명 | 계 |
|----------------|---|-----|
| 관장 | *荻山秀雄(1923-1945) | |
| 부관장 | 이재육(31, 35, 36) | 1 |
| 사서 | 박봉석(35, 37), 최장수(31, 36) *島崎末平 등 일본인 10명 | 2 |
| 서기 | *岩元雄一 등 일본인 7명 | |
| 축탁 | 김병모, 고흥겸, 손호익(36, 39), 이동곤, 이부열, 이봉석, 이수동, 이흥종(36) *宮川吉備雄 등 일본인 24명 | 8 |
| 조수(고원) | 강문기, 강문희(31, 35, 36), 강문희, 강준기, 고원배, 박수엽, 구임준, 구전효, 김광재(38), 김규언, 김두환, 김문환, 김상범, 김순덕, 김옥선, 김용희(통역), 김윤길, 김원동, 김정무, 김정현, 김정환, 김찬중, 김창기, 김창복, 김창휘, 김창희, 김충련, 김태인, 김태일(35), 김현만, 김해룡(42), 김희태, 권태수, 남상영, 동진숙, 맹장만, 맹재욱, 민삼현, 박순철(38, 39), 박영환, 박재이, 박희영(42), 백석기, 백일승, 변욱, 손병학(42), 손영수, 송장순(42), 송정근, 송포백, 서용빙, 신석균, 신인범(42), 안명철, 오상근, 오원영, 양세중, 양태식, 윤규섭, 윤인식, 윤지, 윤태덕, 이기방, 이대응, 이문기(35), 이범해, 이상필, 이성현, 이수락, 이의영(40, 42), 이일목, 이정국, 이종설, 이종화(42), 이재홍, 이주구, 이계방, 이계황, 이진영(42), 이태응, 임권길, 임용성(35), 정비석, 정성근, 정창화, 조덕건, 조병숙, 주종설, 지수장, 차준일(42), 최광열, 최대준, 최상익(31), 최용택(42), 표경준(38), 한명순, 황순주, 홍순원(42), 허부호, 허용수, 허정민, 현영순, 황기성, 황종호 *宮本茂人 등 일본인 87명 | 104 |
| 공수 | 김수동, 김재학(38), 서상필, 신대균, 이주순, 피용득 | 6 |
| 취제 (순시, 수위) | 강용기 | 1 |
| 사자생 | 김갑동(42), 김성인(35), 박진태, 송중호, 신태희(35), 오상봉, 오한갑(35), 이영재, 이정수, 이춘복(38, 40), 임명재(35), 정용석(35), 진상덕(42), 황순주, 허광식(42) | 15 |
| 관수(소사) | 고수익, 박준호, 윤홍중, 이소천, 이오봉, 이윤성, 장정식, 정대연, 정수완, 홍문환 | 10 |
| 출납수 | 김영식, 김충현(35), 박노채, 송대섭, 신현목, 안태근, 오복성, 유경문, 윤영호(38), 이교영, 이용준, 이사연, 정종식 | 13 |
| 기타 | 김수철, 김환모(36), 임준광(42), 신석우, 신영금(총독부 문서과), 진용일(42) | 6 |
| 계 | | 166 |

※ 괄호는 '연대표시'로 도서관 직원 교육시기를, "*"는 일본인 수를 비교하기 위해 나타났다.

11) 여러 자료에서 교차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사(1973, 238-239)에 따르면, 1945년 8월 16일자 한국인 직원은 박봉석 부관장을 비롯하여 이의영(사서), 강춘수(서기), 송포백, 허만, 이일목(이상 사서보), 김동희, 김순영(이상 조수), 김수동(공수), 조홍복(순시), 이민하(관수견습), 황석주, 유성복, 이억술, 권오복, 이택희(이상 사동) 등 16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 보면 오기야마(荻山秀雄) 관장은 1923년 직제 공포와 함께 임명되어 1945년 강제 퇴임될 때까지 전 기간 관장직을 유지한 유일한 인물이다. 처음에는 제국대학령사서관 규정을 준용하여 고등관 6등급으로 발령받았으나 이후 승임되어 주임관 3등급까지 올라갔다. 이재욱은 촉탁, 사서, 주임사서(현 5급 사무관)를 거쳐 1942년부터 부관장을 한 인물로서 해방 후, 초대 국립도서관 관장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사서는 관입관(현 6-7급 공무원)으로서 대외적 직급은 높지 않았다. 이외에 사서검정 시험을 통과하고 사서가 된 박봉석과 최장수가 『朝鮮總督府職員錄』에 등재된 사서이다. 박봉석은 이재욱이 낙향한 이후 해방 시기까지 부관장을 하기도 했다(國立中央圖書館, 238). 박희영이 수기로 작성한 『朝鮮總督府圖書館員錄』에는 안헌이(安憲二)가 사서로 기재되어 한국인 사서로 보였지만, 다른 기록으로 확인한 결과는 일본인 안전헌이(安田憲二)의 오기로 판단된다(한국도서관사학회, 242).

이렇듯 『朝鮮總督府職員錄』에 따르면, 전 기간에 걸쳐 사서 이상의 직급으로 종사한 한국인은 3명에 그쳤으나, 일본인은 島崎末平, 玉置脩二郎, 廣田武治, 宮川吉備雄, 奥田直毅, 山本春喜, 河野四郎, 安田憲二 등 10명이 사서로서 근무했다. 행정 서기로 가면, 이러한 차이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일본인은 岩元雄一 등 모두 7명의 서기가 이 기간 존재했으나, 한국인은 1명도 없다. 이는 행정 라인에서는 한국인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촉탁에는 한국인이 8명, 일

본인이 24명으로 도서관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정규직 직원에 일본인은 42명이 있었고, 한국인은 12명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기간에 한국인 고원(조수)은 전체 104명으로 일본인 87명보다 16명 많았다. 일본인 고원 중에는 촉탁이나 사서로 승진한 사람이 있었으나, 한국인은 없었다. 고원 중에, 『朝鮮總督府圖書館員錄』을 작성한 박희영(朴熙永)은 해방 후에 국립도서관 동서과장, 한국외대도서관 사서장, 동국대학교 사서과장이 되었다(오동근, 85). 또한 고원이었던 남상영(南相瑛)은 해방 후, 국립도서관 총무과장으로 재직했고 조선도서관학교 교무주임과 조선도서관협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6.25 전쟁시에는 북한군 정치보위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된 다음, 10월 5일에 국립도서관 임시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11월 2일 국립도서관 관장서리로도 임명된 바 있다. 특히 6.25전쟁 동안 인민군이 가져간 고서를 되찾아 온 공로가 인정되었고, 이후 1956년에는 국립도서관 사서과장으로 일하기도 했다.¹²⁾ 이들 고원 중 일부는 국립도서관 직원으로 그대로 계승되어 해방 후와 6.25 전쟁 후에 국립도서관의 필수 인력으로 성장했다. 이하의 하급 직원에서 일본인은 찾을 수 없었지만, 취제, 사자생, 관수, 출납수, 기타 정확한 직책이 확인되지 않은 직원 등 45명의 인명이 나타났다. 이로 볼 때 하급직 업무에 해당하는 대부분을 당시 한국인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 강습회 등 교육과 더불어 살펴볼 수 있는 연구회 활동은 자세히 살펴보기 어렵지만,

12) 국립중앙도서관사(1973) 245, 248-251쪽 내용을 종합하여 기술하였다.

연구회 가입 현황은 찾아볼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 직원으로 조선도서관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으로는 이재욱(사서-부관장), 박봉석(사서), 최장수(사서), 손호익(촉탁), 권태수(조수), 김광제(조수), 김창기(조수), 김태연(조수), 신영금(문서과), 신석우(문서과), 이상필(조수), 이춘복(조수), 최상익(조수) 등이 있었다(朝鮮之圖書館, 1(1):62-63). 반면에 일본도서관협회 가입자도 상당수 있었는데 김갑동(사자생), 김두환(조수), 김해룡(조수), 김희태(조수), 이문기(조수), 이종화(조수), 이진영, 진상덕(사자생), 최용택(조수), 허광식(사자생) 등이 있었다.¹³⁾

일제강점기 중, 『朝鮮總督府統計年報』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도서관 수를 기록한 해는 1932년으로 총 52개 공공도서관이 있었다. 관립도서관 2개, 공립도서관 14개, 사립도서관

36개에 이른다. 1940년대에 가면, 태평양 전쟁의 영향으로 사립은 급격히 줄어들고, 전체 42개 도서관 중, 관립 2, 공립 26, 사립 14개 도서관이 된다. 공립도서관은 모두 일본인 관장이 있었고, 주요 직원도 일본인이었다. 또 전쟁 과정에서 일본인이 운영하던 사립도서관은 일부 공립으로 전환되었지만, 한국인이 운영하던 사립은 대개 그대로 폐관되었다. <표 4>는 공립도서관인 부립도서관을 중심으로 간략한 현황을 조사하여 소개한 것이다.

개성부립도서관의 고한영, 이경달, 이경룡, 유순경, 홍윤승 등 모두 조선도서관연구회 회원이었고, 진동원은 1939년 8월 4일 조선총독부도서관을 견학한 바 있다. 당시 총독부도서관을 견학하는 것은 일종의 벤치마킹과 같은 것으로써 새로 도서관을 만드는 경우에는 종종 견학을 다녀왔다.

<표 4> 일제강점기 부(군·읍)립도서관 한국인 직원현황

| 도서관명 | 관원 명 | 계 |
|-------------------|--|----|
| 개성부립도서관 | 고한영, 이경달, 유순경, 이경룡, 진동원, 홍윤승 | 6 |
| 경성부립도서관 | 강진국, 김명진, 박두신, 박홍식, 송몽룡, 오귀환, 이근희, 이범익, 이범우, 이상현, 이성규, 이종달, 유익, 한영주, 홍종화 | 15 |
|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 | 이금중(분관장), 성달영(분관장), 윤지병, 고광세, 이종억, 이범연 *사립 경성도서관 최초 설립자: 윤익선, 이범승 | 8 |
| 원산부립도서관 | 박기순 | 1 |
| 전주부립도서관 | 신동군 | 1 |
| 진남포부립도서관 | 고정섭, 안규응 | 2 |
| 평양부립도서관 | 김인경, 박용환, 안찬서, 이용수, 이영근, 이정욱, 차영도 | 7 |
| 양양군립도서관 | 이홍명(서무 주무로 부관장 겸임) | 1 |
| 삼척군립도서관 | 박운혁(강원도 삼척군 도서관 주사로 근무) | 1 |
| 청주읍립도서관 | 김창기 | 1 |
| 계(10) | | 43 |

13) 일본도서관협회 가입자 현황은 岡村敬二(2017)의 전체 기록에서 추출한 것이다.

경성부립도서관의 강진국, 박두신, 송몽룡, 오귀환, 이범익, 이상현, 이성규, 이종달, 유익, 홍중화 등 대부분은 조선도서관연구회 출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 중, 강진국, 김명진, 오귀환, 박홍식, 이근희, 이종억, 이범우, 유익, 한영주 등은 1931년 제1회 도서관사향강습회에 참가했고, 이상현은 1938년 하계도서관강습회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다.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은 윤익선이 1920년 취운정에 세운 사립 경성도서관과 이범승이 1922년 탑골공원 부근에 세운 경성도서관이 합쳐서 운영되다가 1926년 4월 1일 경성부에 양도되어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으로 된 것이다. 초대 분관장 이공종과 이후 분관장 성달영은 조선도서관연구회 간사와 이사를 지냈고,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참가했다. 윤지병, 이종억, 고광세, 이범연도 모두 조선도서관연구회 회원이었고, 윤지병, 이종억, 이범연은 1931년 제1회 도서관사향강습회에 참석한 기록이 남아있다.

한편, 당시 3.8선 이북 쪽에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큰 도서관이 없었다. 평안북도는 대개 간이도서관 형식의 신문도서관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도서관에 대한 몇몇 기록만 남아있다. 원산부립도서관 직원 박기순은 1939년 4월

25일, 26일 개최된 조선도서관연맹 총회에 출석한 기록이 있다. 또한 진남포부립도서관 고정섭은 1940년 8월 7일 도서관을 대표한 사서로서 조선도서관연맹총회에 참석하였고, 안규응도 조선총독부도서관 견학을 다녀왔다.

평양부립도서관에서는 박용환, 이용수, 이영근 등이 조선도서관연구회에 참여했고, 이정옥은 1938년, 김인경은 1939년 각각 조선총독부도서관을 견학했다. 또한 차영도는 1931년 제1회 도서관사향강습회에 참가했고, 이용수와 이영근도 1938년 하계도서관강습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도서관의 수적인 면에서 우세한 학교도서관 통계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조사한 바로는 경성제국대학 김용배, 김영표, 김진섭, 김학준, 송여근, 이해진, 임성빈, 호기현 등 직원 대부분은 조선도서관연구회의 초기 회원으로서 활동한 바 있다. 김진섭은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초대 도서관장이 되었고, 이봉순은 1956년 이화여대에 도서관학을 부전공으로 개설하고 이어서 1958년 도서관학과 창설을 주도했으며, 여성 최초로 한국도서관협회 회장과 한국도서관학회 회장을 하는 등 한국 도서관사

〈표 5〉 일제강점기 대학도서관 한국인 직원현황

| 도서관명 | 관원 명 | 계 |
|-------------|---|----|
| 경성광산전문학교 | 윤공중 | 1 |
| 경성제국대학도서관 | 김용배, 김영표, 김진섭, 김학준, 송여근, 이봉순, 이해진, 임성빈, 호기현 | 9 |
| 경성의학전문대학도서관 | 김충련(도서과) | 1 |
| 보성전문학교도서관 | 윤택중, 홍태훈 | 2 |
| 연희전문학교도서관 | 김병서, 유경상(사서관), 최광범, 황재연 | 4 |
| 계(5) | | 16 |

의 중추인물이 되었다(이봉순, 327-330).

김충련은 조선총독부도서관 출판수 출신으로 1939년 11월 경성의학전문학교 도서관과로 전임했는데, 제2회 도서관강습회를 수료한 바 있다. 보성전문학교 윤택중은 1938년 제4회 하계 도서관 강습회를 수료했고, 홍태훈은 1935년 10월 8일부터 경성에서 개최된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앞두고 열린 도서관대회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도서관강습회를 수료했다. 연희전문학교도서관 직원 최광범은 1933년 조선도서관연구회에 입회했고, 사서관 유경상은 1935년 제2회 도서관강습회를, 김병서와 황재연은 제4회 도서관강습회를 수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경성광산전문학교 윤공중은 1940년 1월 도서관 개설을 위해 조선총독부 도서관을 견학한 기록이 남아있다.

인정도서관은 1931년 12월 김인정이 자신의 회갑을 기하여 평양 시민을 위한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당시 8만 5,000원을 회사하여 설립한 것이다. 도서관 건물은 연와 2층으로 대지 650평에 총건평은 216평이었고, 이중 서고는 4층으로 46평이었다.¹⁴⁾ 인정도서관의 설립자 김인정은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석하여 도서관사업 공로자로 표창받았으며, 조선도서관연구회의 명예회원이기도 했다. 인정도서관 관장 정두현은

1933년 1월 27일 조선도서관연구회 총회에서 평의원으로 취임했고, 1934년 8월 3일부터 2일간 개최된 「전조선부립도서관주임자협의회」에 참석하여 (개정)도서관령의 조선 실시시책 등을 협의한 바 있다. 특히 제29회, 제31회 전국도서관대회에 모두 참가했다. 직원 장재준은 조선도서관연구회 회원이었고,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여했으며 1935년 2회 강습회와 1936년 제3회 도서관강습회를 모두 수료했다. 1939년 4월 25일, 26일에 개최된 조선도서관연맹 총회에도 참석한 바 있으며, 1941년 사서주임으로 퇴직하였다. 김용길은 1931년 제1회 도서관사향강습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서관사에 있어 인정도서관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에 앞서 평양에 만들어진 도서관은 백선행기념관이다. 백선행(白善行)은 일제강점기 평양에서 백선행기념관 재단법인을 설립한 사회사업가로서 평양 사회의 지도자 조만식(曹晩植)과 뜻을 같이하여 일본인들의 공회당인 평양 부민관보다 큰 민간 문화운동의 집회장으로 도서관 겸용의 공회당 신축을 위해 백선행기념관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1928년 백선행기념관은 550여㎡ 부지에 1천770여㎡ 연건축 면적의 3층짜리 석조건물로 세워졌는데 1층에는 휴게실, 도서관과 2층, 3층에는 회의실

〈표 6〉 일제강점기 사립도서관 한국인 직원현황

| 도서관 명 | 관원 명 | 계 |
|--------|---------------------------------------|---|
| 인정도서관 | 김인정(설립자), 정두현(관장), 김용길, 박인오, 장재준, 조두현 | 6 |
| 백선행기념관 | 백선행(설립자) | 1 |
| 계(2) | | 7 |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정도서관(仁貞圖書館)



① 평양 인정도서관(위, 우측), 백선행기념관(아래)

②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석한 김인정과 정두현

〈그림 2〉 인정도서관과 백선행기념관¹⁵⁾

〈표 7〉 일제강점기 농촌문고 한국인 직원현황

| 도서관 명 | 관원 명(설치 장소) | 계 |
|----------|-----------------------|---|
| 마성개성문고 | 전식(평북 의천군 심천면 마성리) | 1 |
| 문발농촌문고 | 홍진국(평남 대동군 고평면 문발리) | 1 |
| 산막농촌문고 | 남상필(경기 장서군 강상면 구화리) | 1 |
| 수송농촌문고 | 김춘수(평북 용천군 양하면 수송동) | 1 |
| 죽림농촌도서관 | 천익호(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 1 |
| 포천농촌문고 | 이송준(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양리) | 1 |
| 회목농촌문고 | 피홍점(함남 고원군 상산면 회목리) | 1 |
| 대천농촌문고 | 대천청년단(경남 김해군 구포면 대천리) | 1 |
| 금내리농촌도서관 | 최석수(전남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 1 |
| 계(9) | | 9 |

15) 〈그림 2〉-① 인정도서관 사진은 〈朝鮮之圖書館〉 3호 표제지 뒷면 사진이며 〈그림 2〉-②는 왼쪽부터 인정도서관 관장 정두현(鄭斗鉉), 오키 쇼조(沖莊藏) 관장, 인정도서관 설립자 김인정(金仁貞) 여사, 조선총독부도서관 오기야마 히데오(荻山秀雄) 관장이다(文獻報國, 1(2) 표제지 뒤 목차 전, 도면).

과 예술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기념관에는 백선행 반신상과 '백씨선행기념비'가 있다. 현재도 이 건물은 사용되고 있다.¹⁶⁾

일제강점기 농촌문고의 설립은 당시 총독부에서 실시한 조선농촌진흥운동(1932.7-1940.12)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조선인에 의한 자발적인 민족계몽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실상은 조선인들의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계몽 활동을 도서관 설립 활동으로 끌어드리고, 이들의 활동을 정책 범위 내로 제한하므로 식민화를 위한 교화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 기관으로 이용되었다(김남석, 1996, 343-345).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농촌문고는 전국적으로 운용되었고 그 지부만 219개 기관이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9곳만이 확인되었다(동아일보 1936.2.29. 4면). 보통 1개 농촌문고에 중학교 졸업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춘 주임과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조수와 소사 등 2~3명이 근무하였다(김남석, 354). 이름이 밝혀진 최석수, 전식, 홍진국, 남상필, 김춘수, 천익호, 이흥준, 피홍점 등 설립자 8명과 1개 단체의 활동 상황은 세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들 문고와 직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방의 유력인사가 모두 포함되는 운영위원회가 있었다고 한다. 설립자가 모두 당시 조선인이었다는 점과 행정단위 말단인 뽕나뭇잎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농촌문고에서 실시한 보통학교 4학년 수준의 아동교육과 성인을 위한 야학, 그리고 농촌문고와 더불어 실시된 농촌 순회문고의 영향은

일제 통치 시기에 나타난 어떤 교화시설보다도 당시 한민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김남석, 1996, 347).

4.2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원의 연구 활동

일제강점기 도서관원 중, 한국인으로서 도서관 관련 잡지에 연구 논문이나 에세이 형태의 글을 남긴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일제강점기지만 해방 후에 국립도서관장과 부관장을 지낸 이재욱과 박봉석 같은 인물은 수십 편의 저작을 남겼다. 순수하게 개인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저작이기도 하지만 일부 글을 보면, 관제적 성격의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앞서 본 일제강점기 후반, 농촌도서관의 성격과도 연관이 있다. 당시 8월이 되는 농촌인구는 자주 독립을 위해 인재 양성을 원하는 한국에 있어서나 이들의 생산성을 높여 자국의 경제와 전쟁에 이용하려는 일본이나 모두 중요한 과제였다. 이런 까닭에 농촌도서관에 관한 글들이 관제적 성격의 지원활동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당시 총독부도서관 촉탁 이재욱은 『農村圖書館의 經營法』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했고, 경성부립도서관의 강진국은 “農村事業을 附帶한 農村文庫 創立이 急務”라는 제목으로 9회(1936.2.2.~1936.3.11.), “農村文庫經營論: 그 方法과 必要에 대하여”로 24회(1937.10.8.~1937.12.8.), “農村文庫에 備置할 農村指導圖書”로 3회(1937.12.5.~12.12)에 걸쳐 東亞日報에 게재했다. 이외에도 강진국은 “農村文庫建設의 急務”라는 제목으로 논문 형식의 글도

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백선행(白善行), 통일뉴스(2015. 7. 24). 北, 검소와 헌신의 상징 '백선행' 소개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934>)

〈朝鮮之圖書館〉 5권 6호(1936.12)와 6권 1호(1937.7)에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도서관 직원으로서의 연구 활동은 양면적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에 한국인 도서관 직원들의 연구 활동 현황과 전체적 비중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도서관 직원들의 역량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전체 현황 파악에 그치고, 내용분석은 실시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동안 발행한 도서관 저널 가운데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서관 저널로써 앞서 소개한 〈朝鮮之圖書館〉, 〈文獻報國〉, 〈讀書〉, 〈文化源泉: 良書〉를 조사했다. 이들 잡지 속에 나타난 한국인 도서관 직원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도구로써 『일제강점기 도서관 간행물 목차집』의 색인을 조사하여 한국인 인명을 찾아냈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일부 복수 저널에 기고한 경우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4개 도서관 관련 잡지에 연인원으로 한국인 55명이 참가했다. 『일제강점기 도서관 간행물 목차집』 색인에 나타난 단순 저자수만 보면, 297명이 일본인이고 한국인은 48명이다. 순수 도서관 직원은 40여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인원수 대비 한국인의 비중은 14% 정도이다. 한국인 중, 〈표 8〉에 전체 논문 수를 표기하지 못했지만 가장 많은 논문 수를 게재한 도서관 직원은 해방 후 국립도서관장이 된 이재욱으로 31편, 부관장이 된 박봉석은 22편, 최초의 문부성 사서검정시험 통과자인 최장수가 8편으로 가장 많은 글을 남겼다. 이 밖에도 도서관원은 아니지만, 당시 명사였던 최남선(崔南善, 1890~1957)과 유진오(兪鎭午, 1906~1987)의 글도 조사된 도서관 잡지에서 발견되었다. 최남선은 당시 조선의 3대 천재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 근대문학 발전에 기여했다. 유진오는 한국의 소설가, 법학자, 교육가로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인사이지만, 두 사람 다 친일 논란에서

〈표 8〉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원의 도서관 저널 참여 현황

| 잡지명 | 이름-권(호) | 계 |
|----------|--|----|
| 朝鮮之圖書館 | 강진국 5(6), 6(1)*, 김영희 4(5), 김원근 5(3·4), 김중강 1(1), 김진섭 1(2), 김태준 4(1), 박봉석 3(6), 4(3), 박화성 4(3), 이돈화 4(1), 이하운 4(1), 최남선 1(2), 추엽용 3(3) | 12 |
| 文獻報國 | 강문희 6(6), 고원배 6(10), 김태연 5(5), 김두환 6(5), 7(5), 김창휘 6(5), 김충련 5(11), 김해룡 7(4), 남상영 6(6), 박봉석 2(2)*, 박순철 5(3), 5(12), 박희영 7(4), 백석기 5(12), 6(5), 서춘 8(11), 석전수 2(4), 손호익 2(4) 5(7) 5(8), 안인식 6(5), 유진오 8(8), 이랑 2(1), 이동곤 6(6) 6(7), 이문기 5(2) 6(12) 7(7), 이수탁 5(3), 이운용 8(7), 이재욱 1(1)*, 이종설 6(10), 이춘복 5(6) 6(2) 6(4), 임명재 6(6) 7(7), 최남선 3(10)*, 최용택 7(5), 최장수 2(3) 4(3) 4(7)*, 한상룡 5(9) | 30 |
| 讀書 | 고홍겸 1(5), 김대우 1(1), 김병모 1(1), 1(2), 박봉석 1(1), 손호익 1(5), 최장수 1(2) 1(3) 1(5) 1(6) 2(1), 추엽용 1(2) | 7 |
| 文化源泉: 良書 | 박봉석 6(3), 백철 20(1), 손진태 21(1) 22(1), 신남철 1(7), 이정섭 24(1), 홍순혁 5(2) | 6 |
| 계 | | 55 |

※ *표시는 별도의 설명을 추가한 인사임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기도 하다.¹⁷⁾ 최남선이 <文獻報國> 3권 10호에 남긴 글은 조선총독부 도서관에서 실시한 제9회 명사 강연에서 “조선의 괴담”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것이고, <朝鮮之圖書館> 1권 2호에도 “일본 문학에서의 조선의 면영(面影)”이란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유진오도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실시한 제67회 공개 명사 강연을 통해 발표한 “이조 실학과에 대해”라는 글을 <文獻報國> 8권 8호에 게재했다. 일본은 이렇듯 당시 사회에 영향력을 갖는 조선의 유력인사들을 ‘명사 강연’ 형식으로 초청하여 강연을 시키고 그들의 글을 도서관 관련 저널에 남겨 널리 활용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3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역할과 시사점

일제강점기 도서관에서 근무한 한국인 현황과 도서관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해 앞서 단원 3과 단원 4에서 확인된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활동 현황을 종합한 것이다. 이외에도 조선

도서관연맹총회, 전조선부립도서관협의회, 청년도서관연맹 등에서 도서관원으로 활동한 흔적이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모두 다루지는 못했다. 단지 1939년 4월 25일과 26일 양일에 열린 조선도서관연맹창립총회에 한국인 참석자는 조선총독부도서관 이재욱, 인정도서관 장재준, 원산부립도서관 박기순이 참석하였고, 철도도서관과 개성, 청진, 함흥, 전주, 인천, 경성, 부산, 평양, 신의주 등지의 부립도서관에서도 참여했는데 일본인 관장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文獻報國>, 5(6):표제지 뒤 사진).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일제강점기 동안 도서관 직원으로 활동하고 인명이 확인된 한국인은 총 241명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도서관은 조선총독부도서관(관립) 1개관, 경성부립도서관을 비롯한 부(군·읍)립도서관 10개관, 경성제국대학도서관 등 대학도서관 5개관, 김인정도서관과 농촌도서관 등 사립도서관 11개관 등 모두 27개 관에 달했다. 27개 도서관 외에 부산, 인천 등주요 도시에 부립도서관과 철도국도서관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기록의 부실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운영한 철도도서관은 직

<표 9>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 활동 현황 종합

| | 도서관원 수 | 강습회 참가자 | 조선도서관연구회 참가자 | 총독부도서관 견학자 |
|----------|--------|---------|--------------|------------|
| 총독부도서관 | 166 | 48 | 13 | |
| 부(읍)립도서관 | 43 | 16 | 24 | 5 |
| 대학도서관 | 16 | 6 | 9 | 1 |
| 사립도서관 | 7 | 3 | 3 | - |
| 농촌도서관 | 9 | - | - | - |
| 계 | 241 | 73 | 49 | 6 |

17) 위키백과 참조(<https://ko.wikipedia.org/wiki>)

원이 거의 일본인이었고, 인천, 부산 등 주요 개항지의 도서관은 일제강점기 전부터 치외법권 지역인 일본인 거주지(居留地)였기 때문에, 도서관 직원도 일본인으로 대부분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 9회에 걸쳐 실시된 도서관강습회에는 연인원으로 한국인 73명이 참가했고, 조선도서관연구회에서 활동한 사람은 모두 49명이었는데, 전체 인원수 비교를 통해 볼 때, 부립도서관 직원들의 활동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도서관연구회는 1939년 조선도서관연맹으로 바뀌고 해방 후 설립된 조선도서관협회의 전신 역할을 했는데 각종 강습회를 주최하였다. 한편, 1940년 이후에 일본도서관협회 가입자도 11명이나 되는데 주로 조선총독부도서관직원들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성에서 개최된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 한국인 참가자 22명으로 집계되었고, 1937년 만주에서 개최된 제31회 전국도서관대회에도 강문희, 김태언, 성달영, 정두현 등 한국인이 다수 참가하였다.¹⁸⁾

도서관 관련 연구 참여자는 앞서 조사한 4개 도서관 관련 잡지에 55명이 있었지만, 모두 도서관 직원으로 볼 수는 없고, 도서관별이나 개별 분류가 쉽지 않아 도서관 직원 총수에 포함하거나 분류하지 않았다. 도서관 관련 잡지에 발표된 논문이나 에세이 등의 내용이나 영향 분석 등 질적 측면의 연구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의 제한점에 따라 한국인 사서

의 포괄적인 활동 현황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해방 후나 지금까지도 일본의 도서관 직제와 여러 도서관 활동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강습회와 전국도서관대회는 현재도 비슷한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고, 한국도서관협회도 조선도서관연맹의 뒤를 이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직제나 운영방식도 국립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도서관 주간이나 순회문고 역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도서관 활동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앞선 분석에서 본 것처럼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땀과 눈물도 섞여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서관의 명맥을 이어준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을 오늘에 소환해서 다시 그들의 이름을 명기하고 그들이 한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이다.

5. 결론

한국에서의 근대도서관의 성립은 일제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졌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후에 3차례에 걸쳐 파견된 조선의 수신사들은 일본의 선진 도서관을 시찰하고 돌아와 기록으로 남겼다. 일본은 한반도에 들어와 일본인 거주지역에 일본인을 위한 근대적 도서관을 세우기 시작했고,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 병합 때까지 이러한 기조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이후, 무단 정책에 서 문화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일본은 부립(府

18) 한국인 참가자 수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당시 한국인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중국 본토, 대만 등에 산재해 있었고 이들 중 여러 사람이 이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立) 중심의 도서관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이 제도적, 실체적으로 근대도서관을 한국에 이식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의 역사 속에서 그 기록마저 사라지고 흩어져버려 이름마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이름을 소환하여, 그들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시작하였다. 이마저도 일본인 오카무라 케이지(岡村敬二)가 2017년 펴낸 『戰前期外地活動図書館職員人名辭書』와 일본의 金澤文圃閣 編集部가 2018년 펴낸 『編戰前期「外地」図書館資料集-朝鮮編』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두 자료를 기초로 해서 관련 참고자료를 보완하여 조사한 결과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은 총 27개 도서관에서 근무한 241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한 도서관은 관립도서관인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166명이 근무했지만, 촉탁 이상의 한국인은 11명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현재의 시·군 단위 공공도서관에 해당하는 부(군·읍도서관)립도서관 10개 도서관에 43명, 5개 대학도서관에 16명, 농촌도서관을 포함한 11개 사립도서관에 11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그 직위나 직급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을 비롯하여 대부분 도서관에서 관장 등 상위직급자가 일본인이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었지만, 한국인도 중·하위 직급에는 상당수가 분포되어 도서관 운영에 많은 부분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제강점기 동안에 교육과 훈련은 주로 도서관 강습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1931년

8월부터 1943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2일에서 7일간 실시되었고, 총 참여 인원은 750여 명이였다. 이 가운데 한국인 참가자는 73명이었으며, 조선총독부도서관 48명, 부립도서관 16명, 대학도서관 6명 순이었다. 일본인이 중심이 된 도서관 운영 환경에서 한국인 교육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 위상도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문부성에서 실시한 사서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사서가 된 한국인은 최장수와 박봉석 2명으로 모두 조선총독부도서관 직원이었다. 도서관 강습회의 강의 구성은 필수과목으로 도서관학개론, 학교도서관(소도서관, 순회문고, 통속도서관) 등 도서관경영법(도서관관리법), 화한서분류법과 목록법(실습)이 있고 선택과목으로 양서분류법 및 목록법(실습), 도서선택, 도서정리, 독서지도, 도서관 교육 같은 과목들이 있었고, 시기에 따라 조선고문헌관리, 도서수리법, 관외 대출과 제본론, 근대도서관의 지표 등이 개설되었다.

셋째, 도서관원들의 권익과 정보 교환 창구로서 초기 도서관 연합체 성격을 가졌던 조선도서관연구회는 1931년 창립 당시 회원은 116명이었고, 이 중 한국인은 25명이었는데, 이후 가입한 인원을 포함하면 한국인은 모두 4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립도서관 24명, 총독부도서관 13명, 대학도서관 9명 순으로 인원 대비로 볼 때, 참여율이 높은 부립도서관의 조선도서관연구회 회원들이 그 주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39년에는 조선도서관연맹으로 대체되었다.

넷째, 식민지 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도서관협회는 1935년 10월 경성제국대학에서 제 31회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대회 참

가자는 모두 186명이었다. 그중 조선에서는 95명(일본인 73명, 한국인 22명), 만주와 대만에 서의 참가자는 21명이었다. 한국인 참가자 22명의 인명이 확인되었으며, 이 들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도 역할을 했고, 해방 후에는 한국 도서관계를 이끈 인물들로서 우리나라의 근대 도서관의 이식과정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연구 활동을 당시 도서관 관련 주요 잡지인 〈朝鮮之圖書館〉, 〈文獻報國〉, 〈讀書〉, 〈文化源泉: 良書〉를 통해 조사한 결과, 연인원 55명이 참가했다. 『일제강점기 도서관 간행물 목차집』 색인에 나타난 저자수로 보면, 일본인이 297명이고 한국인은 48명이고, 이 중 도서관원은 40여 명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는 당시에 명사였던 최남선과 유진오도 참여했는데 그 내용은 평가하지 않았지만, 농촌진흥운동이 농촌도서관설립과 관련이 있었던 것처럼 관계적 성격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여섯째, 도서관 개관이나 벤치마킹을 위해 조선총독부도서관을 견학한 한국인 6명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조선도서관연맹총회, 전조선부립도서관협의회, 청년도서관연맹, 한국과 만주의 도서관 연합체인 滿鮮圖書館聯合研究會

등 다양한 조직과 단체에서 한국인 도서관 직원들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근대적 도서관 이식과정에 있었던 한국인 도서관 직원들의 현황을 큰 틀에서 살펴봤다. 일본인 주도의 도서관 환경이었지만 결코 한국인 도서관 직원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특히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경우, 하급직이지만 한국인 도서관 직원이 더 많았으며, 해방 후, 상당수가 국립도서관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별도의 연구과제로 살펴볼 일이다. 한편, 이 연구는 전반적인 도서관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 도서관 직원의 역할 등 다양한 활동 분야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고, 세밀한 자료 분석과 검증보다는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고 추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보다 많은 검증 자료를 통해 개별 인물의 활동을 파악하고 관종별로 그들이 우리나라 근대 도서관의 이식과 형성과정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밝혀내어 일제강점기의 도서관 역사가 보다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조선도서관연구회'와 같은 여러 단체의 역할과 단체에 가입한 주요 회원들의 글에 대한 내용과 상호관계 분석 등 앞으로 세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서 및 번역서]

- [1] 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共著, 최석두 옮김 (2009). 일본의 식민지 도서관: 아시아에서의 일본 근대 도서관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 [2] 國立中央圖書館 編 (1973). 國立中央圖書館史.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 [3] 金南碩 (1990). 日帝下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4] 金南碩 (1996). 日帝時代 農村文庫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論集, 0(24), 335-364.
- [5] 김영석, 이용재 (2018).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공도서관 규명에 관한 연구: 일본홍도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131-150.
- [6] 배항섭 (1991.2). 남북한의 '우리 역사 시기 구분'을 둘러싼 쟁점: 왜, 남북한 근현대 시기 구분, 큰 차이 있다. 역사비평, 244-256.
- [7] 백린 (1969). 한국도서관사연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8] 송승섭 (2021). 이재욱의 저작과 업적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619-644.
- [9] 오동근 엮음 (2000). 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 대구: 태일사.
- [10] 이봉순 (2001). 이봉순 자서전: 도서관할머니 이야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11] 이용재 (2013). 도서관 인물 평전. 부산: 산지니.
- [12] 조혜린 (2020). 국립도서관 초대 관장 이재욱에 대한 一考: 조선총독부도서관 기관지 『문헌보국(文獻報國)』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0(84), 279-298.
- [13] 통일뉴스 (2015. 7. 24). 北, 검소와 헌신의 상징 '백선행' 소개.
출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934>
- [14] 한국도서관사연구회 편 (2020). 일제강점기 도서관 간행물 목차집. 서울: 도연문고.
- [15]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근현대인물자료.
출처: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m>

[동양서]

- [16] 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共著 (2005). 日本の植民地圖書館: アジアにおける日本近代圖書館史. 東京: 社會評論社.
- [17] 岡村敬二 (2017). 戰前期外地活動図書館職員人名辭書. 東京: 武久出版株式會社.
- [18] 金澤文圍閣 編集部 編 (2018). 戰前期「外地」図書館資料集-朝鮮編 9卷, 金澤市: 金澤文圍閣.
- [19] 金澤文圍閣 編集部 編 (2018). 戰前期「外地」図書館資料集-朝鮮編 別卷: (藤田豊, 「朝鮮總督府圖書館員錄解說」), 金澤市: 金澤文圍閣.
- [20] 朝鮮圖書館研究會 編 (1931-1938). 朝鮮之圖書館. 京城: 朝鮮圖書館研究會.
- [21] 朝鮮圖書館聯盟 編 (1939-1941). 文化源泉: 良書. 京城: 朝鮮圖書館聯盟.
- [22] 朝鮮讀書聯盟 編 (1937-1938). 讀書. 京城: 朝鮮讀書聯盟.
- [23] 朝鮮總督府 編 (1913-1944). 鮮總督府統計年報. 京城: 朝鮮總督府.
- [24] 朝鮮總督府圖書館 編 (1935-1944). 文獻報國. 京城: 朝鮮總督府.
- [25] 朝鮮總督府圖書館 編 (1943). 朝鮮總督府圖書館寫眞集. 京城: 朝鮮總督府圖書館.

• 국·일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zuo, Kato., Iko, Fuminori & Kawata Tojo, Translated by Seok-Doo Choi (2009). Japanese Colonial Libraries: Japanese Modern Library History in Asia. Seoul: Hanul Academy.
- [2] National Library of Korea (1973). The History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3] Kim, Nam-Seuk (1990). Public Libraries in Contexts of Adult Education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Daegu: Keimyung University Press.
- [4] Kim, Nam-Seuk (1996). A study of rural-mini librarie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Journal of Korean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4, 335-364.
- [5] Kim, Young-seok & Lee, Yong-jae (2018) A study on the first modern public library in Korea: focusing on japanese hongdohoe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2), 131-150.
- [6] Bae Hang-seob (1991.2). Issues surrounding the 'categorization of our historical period' between the two Koreas. - why, is there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modern and today, modern tim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Critical Review of History, 244-256.
- [7] Paik, Rin (1969). A Study on History of Library in Korea.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8] Song, Sung-seob (2021). A study on the writings and achievements of Jaewook Le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619-644.
- [9] Oh, Dong-Geun edition (2000). The Life and Thoughts of Bong-Seok Park, a Librarian. Daegu: Taeilsa book publishing.
- [10] Lee, Bong-Soon (2001). Lee Bong-soon Autobiography: The Story of a Library Grandmother.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11] Lee, Yong-jae (2013). Critical Biography of Library' Person. Busan: Sanjini book publishing.
- [12] Jo, Hye-rin (2020) A study on 'Lee Chai Wuk', the first director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focused on Munheon Boguk published by the library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Korea.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84, 279-298.
- [13] Tongilnews (2015. 7. 24). North Korea introduces 'Baeg, Seon-haeng', a symbol of frugality and devotio. Available: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934>
- [14] Korean Society for Library History Research ed. (2020). Table of Contents of Library Publicatio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eoul: Doyeon Bookstore.

- [15] Korean History Database-Data on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Persons Available: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m>
- [16] Kazuo, Kato., Iko, Fuminori & Kawata Tojo (2005). Japanese Colonial Libraries: Japanese Modern Library History in Asia. Tokyo: Shakai Hyoronsha.
- [17] Keiji, Okamura (2017). Prewar Foreign Activity Library Staff Name Dictionary, Tokyo: Takehisa Publishing Co., Ltd.
- [18] Kanazawa Bumpokaku Editorial Department (2018). Prewar "Foreign Land" Library Material Collection-Korea Edition. volume 9. Kanazawa City: Bumpokaku.
- [19] Kanazawa Bumpokaku Editorial Department (2018). Prewar "Foreign Land" Library Material Collection-Korea Edition. Appendix. Kanazawa City: Bumpokaku.
- [20] Chosun Library Research Institute ed. (1931-1938). Joseonjidoseogwan(Chosun's Library). Gyeongseong: Chosun Library Research Institute.
- [21] Chosun Library Federation ed. (1939-1941). Munhwawoncheon: Yangseo(Cultural Source: Good Book). Gyeongseong: Chosun Library Federation.
- [22] Chosun Reading Federation ed. (1937-1938). Dogseo(Reading). Gyeongseong: Chosun Reading Federation.
- [23] Chosun Government-General ed. (1913-1944). Chosun Government-General Annual Report. Gyeongseong: Chosun Government-General.
- [24] Chosun Government-General's Library ed. (1935-1944). Munheon Bogug. Gyeongseong: Chosun Government-General's Library.
- [25] Chosun Government-General's Library ed. (1943). Chosun Government-General's Library Photo Collection. Gyeongseong: Chosun Government-General's Library.